

대구말과 표준말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비교연구

- 길이를 중심으로 -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Rhythm of Daegu and Standard Korean

- Focusing on Duration -

조 운 일 / Woonil Joh

This paper compares the duration aspect of Daegu tongue with that of standard Korean. In the former study on the rhythm of standard Korean, one of the purposes of the study was to compare it with dialects.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do tha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After Introduction, Chapter 2 surveys the former study. Chapter 3 deals with the materials, method and results of the experiment. Chapter 4 analyzes and interpret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n Conclusion, the most prominent fact is tha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fall short of Daegu tongue speakers' expectations. Daegu tongue is generally considered as "tone language." And as Daegu tongue speakers sensitively recognize pitch, they think that they quickly say the syllables between the pitch stressed syllables, whereas standard Korean speakers say those syllables relatively slowly. But in this experiment, which deals with only duration ignoring pitch, their assumption is proved to be false.

1. 서론

본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위탁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한국어의 운율 및 음소의 자질과 영향변수 연구」(1993년 2월) (이하 '선행연구'라고 간략표기함) 제2장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즉 선행연구는 한국어 표준말에 대한 리듬분석을 한 것이고, 그 실험에 참여한 필자가 동일한 자료를 대구말 사용 화자에 적용시킨 것이 본연구이다.

선행연구는 한국어 표준말의 리듬을 규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그 내용 중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 점은 리듬연구가 방언의 비교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특히 일반적으로 성조언어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 중의 대구말을, 일단 길이만 표준말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표준말의 리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구말 같은 경상도 방언에 대해서 길이를 중심으로 실험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이 실험이 대구말의 리듬을 또다른 관점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개관

선행연구에서의 실험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젊은층의 언어습관과 장년층의 언어습관은 수치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초기증가시에 그러한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난다. 젊은층의 발화속도가 많이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발화의 속도는 50대 여성이 가장 느린 경향을 보여 준다.

2) 일음절대 다음절의 증가비율은 세 유형(V, CV, CVC)을 통틀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첫 음절의 유형과 이후 늘어나는 음절의 유형이 동일한 CVC유형에서의 일음절 대 다음절의 증가비율은 장년층과 젊은층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발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비율의 곡선이 높은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젊은층의 리듬은 음절시간(syllable-timed) 언어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며, 이에 반해 장년층은 강세시간(stress-timed) 언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3. 실험과정 및 결과

3.1. 실험자료

음절유형	음절수	실험자료
V	1	말 많다
	2	말이 많다
	3	말씨가 많다
	4	말씨꾼이 많다
	5	말씨꾼들이 많다
CV	2	말도 많다
	3	말씨도 많다
	4	말씨꾼도 많다
	5	말씨꾼들도 많다
CVC	2	말씨 많다
	3	말씨꾼 많다
	4	말씨꾼들 많다
	5	말씨꾼들만 많다

3.2. 실험대상

선행연구에서는 세대별, 남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말을 사용하는 50대 남자 5명과 여자 3명, 그리고 20대 남자 5명과 여자 3명, 총 16명을 피실험자(informant)로 선정하였다. 이들 네 그룹은 OM(Old Male), OF(Old Female), YM(Young Male), YF(Young Female)로 약칭한다.

이번 실험에서의 피실험자 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확한 대구말을 녹음하기 위하여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모두가 다 대구인 사람들을 찾았다. 즉 자타가 대구 토박이라고 공

인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대구에서 직접 녹음하였다.

3.3. 실험결과(표준말과 대구말 자료 전체의 평균값과 길이증가 비율)

유형	음절수	구분	OM	OF	YM	YF
V	1(1:1)	표준말	390(1.00)	473(1.00)	276(1.00)	286(1.00)
		대구말	296(1.00)	300(1.00)	259(1.00)	266(1.00)
	2(2:1)	표준말	421(1.08)	487(1.03)	324(1.17)	360(1.26)
		대구말	395(1.34)	381(1.27)	317(1.23)	323(1.21)
	3(3:1)	표준말	586(1.50)	715(1.51)	512(1.86)	559(1.96)
		대구말	557(1.88)	590(1.96)	480(1.85)	489(1.84)
	4(4:1)	표준말	717(1.84)	878(1.86)	667(2.42)	743(2.60)
		대구말	753(2.55)	784(2.61)	616(2.38)	596(2.24)
	5(5:1)	표준말	864(2.22)	1056(2.23)	786(2.85)	874(3.06)
		대구말	919(3.11)	940(3.13)	789(3.05)	745(2.80)
CV	1(1:1)	표준말	390(1.00)	473(1.00)	276(1.00)	286(1.00)
		대구말	296(1.00)	300(1.00)	259(1.00)	266(1.00)
	2(2:1)	표준말	456(1.17)	558(1.18)	393(1.43)	419(1.47)
		대구말	458(1.55)	467(1.55)	350(1.35)	380(1.43)
	3(3:1)	표준말	647(1.66)	774(1.64)	577(2.10)	642(2.25)
		대구말	665(2.25)	670(2.23)	528(2.04)	534(2.01)
	4(4:1)	표준말	831(2.13)	933(1.97)	728(2.64)	792(2.77)
		대구말	866(2.93)	857(2.85)	670(2.59)	674(2.53)
	5(5:1)	표준말	963(2.47)	1105(2.12)	859(3.12)	995(3.48)
		대구말	1045(3.53)	1029(3.43)	874(3.37)	813(3.05)
CVC	1(1:1)	표준말	390(1.00)	473(1.00)	276(1.00)	286(1.00)
		대구말	296(1.00)	300(1.00)	259(1.00)	266(1.00)
	2(2:1)	표준말	512(1.31)	629(1.33)	472(1.71)	488(1.71)
		대구말	511(1.73)	496(1.65)	432(1.67)	397(1.49)
	3(3:1)	표준말	695(1.78)	832(1.76)	628(2.28)	686(2.40)
		대구말	724(2.45)	715(2.38)	600(2.32)	563(2.11)
	4(4:1)	표준말	842(2.16)	989(2.09)	785(2.85)	830(2.90)
		대구말	922(3.12)	910(3.03)	737(2.85)	686(2.58)
	5(5:1)	표준말	1025(2.63)	1167(2.26)	915(3.32)	1000(3.50)
		대구말	1083(3.66)	1089(3.63)	934(3.61)	849(3.19)

4. 분석 및 해석

4.1 표준말과 대구말 각각의 음절유형별 길이 및 비율

표준말의 음절유형별 길이를 보면, 세 유형 모두 OF가 가장 위에 있고 YM이 가장 아래

에 있으며, 첫 음절을 제외하고는 OM과 YF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대구말에서는 장년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구분이 매우 뚜렷한 반면 같은 세대의 남녀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이번 실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준말과 대구말 사이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 음절의 양상이다. 표준말에서는 세 유형 모두에서 첫 음절의 길이가 OF, OM, 그리고 청년층의 순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나 대구말에서는 물론 장년층이 조금 더 길게 발음한 것이 보이긴 하지만, 표준말에 비하면 그 차이는 매우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2. 세대 및 성별 표준말과 대구말의 길이 및 비율 비교

기준이 되는 첫 음절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표준말에서는 장년세대와 청년세대의 차이가 상당히 나지만, 대구말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곧 비율 그래프의 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첫 음절의 길이가 짧은 대구말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높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OM에서 길이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즉 처음에는 대구말이 표준말보다 짧으나 세째나 네째 음절부터 대구말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말 사용자들이 표준말 사용자들보다 한 음절 한 음절을 더 분명히 말함을 뜻한다.

5. 결론

표준말 실험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대구말에서 강세간 음절의 증가에 따른 전체음절 길이의 변화양상을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 기본이 된 문장 <말 많다>의 첫 음절 <말>과 <많> 사이를 대구말 사용자들은 표준말 사용자보다 더 짧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표준말을 사용하는 장년세대는 첫 음절을 상당히 길게 발음하였으나, 대구말을 사용하는 장년세대는 청년세대보다는 길게 발음하지만 표준말 사용 장년세대보다는 상당히 짧게 발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이 첫 음절을 기준으로 하는 첨가된 음절과의 비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 기준의 길이가 짧은 대구말의 비율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되었다.

선행연구의 표준말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OF가 가장 길게 발음되고, YM이 가장 짧게 발음되며, OM과 YF는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반하여 대구말에서는 세대간 구분이 보다 뚜렷하였으며, 같은 세대간의 남녀 구분은 별로 선명하지 않고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구말을 사용하는 OM에 있어서 첫 음절은 표준말 사용 OM보다 짧게 발음되었지만, 음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길이가 길어져서 세째 또는 네째 음절을 지나면서 길이의 역전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말 사용자가 표준말 사용자보다 한 음절 한 음절을 훨씬 또박또박 발음함을 반영한다.

즉 표준말 사용자는 강세 있는 음절은 매우 길게 발음하며--이 길이가 곧 강세로 인식됨--강세 사이에 있는 비강세 음절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발음하나, 대구말 사용자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실험전에 대구말 사용자들의 예상과는 빗나간 결과이다. 대구말 사용자들은 높낮이를 상당히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높이 강세가 있는 음절들 사이의 음절을 매우 빨리 발음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대로 높낮이 변화가 별로 없는 표준말은 한 음절 한 음절 분명하게 발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높낮이를 제거하고 길이만을 비교한 본실험 결과 길이에 있어서는 표준말보다 대구말이 음절별로 더 정확히 발음됨이 드러났다.

<참고문헌>

- 성철재 (1991), 표준 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청취 테스트 및 음향분석--, 서울 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현복 (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호영 (1991a), "한국어의 리듬", 한국어 연구논문 제28집, KBS 한국어연구실.
- _____ (1994),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유형론",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 지민제, 이용주 (1990), "한국어 Pause Pattern의 음향음성학적 분석", 통신처리를 위한 음성 정보 변환기술 개발,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 지민제, 이용주, 이정철, 방만원 (1990), "한국어 규칙합성을 위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II: 한국어 리듬패턴 실험적 분석", 통신처리를 위한 음성정보 변환기술 개발,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1993), 한국어의 운율 및 음소의 자질과 영향변수 연구(서울대학교의 최종연구보고서)
-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통신시스템 연구단 (1993), 제1회 ETRI 음성, 언어 및 음향정보처리 워크샵 논문집.